



## 대법원, 유성기업 노조파괴 기업노조 설립 무효판결

### “설립·운영 자주성·독립성 없다” ... 유성기업지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해결해야”

대법원 3부가 2월 25일 유성기업이 주도해 만든 노조파괴용 기업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뒤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될 당시 주체성과 자주성 등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는 최초의 판시’ 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주체성과 자주성 등 실질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설립한 ‘어용노조’는 설립이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다.

#### 소송 통해 노조설립 무효라는 확인 구한 최초 판시

대법원은 “어용노조 설립 무효를 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수 있다고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노동조합

의 노동3권을 보다 신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강조했다.

2016년 4월 14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유성기업노조의 설립 자체가 회사 주도로 이뤄졌고, 조합원 확보, 조직 홍보, 안정화 등 운영이 모두 회사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라며 “기업노조는 설립과 운영에 있어 사용자 회사에 대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설립이 무효” 라고 판단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2심에서 피고인 유성기업노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기업노조의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영동지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유성기업 노조파괴는 자본과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였다” 라면서 “10년 만에 현장에서 어용 기업노조의 존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라고 밝혔다.

지회는 “사법부의 늦장 판결로

유성 노동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노조파괴로 한광호 열사 등 여섯 명의 동지를 잃었다.

#### “노동자아말로 노조설립 주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

지회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제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회는 “회사가 어용노조와 교섭을 신속하게 타결하고, 민주노조와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를 파괴한다” 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어용노조는 임금·단협의 가이드라인이 됐고, 민주노조에 대한 임금동결, 단협해지 같은 사측의 불법 노조파괴를 용인했다” 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이번 판결이 많은 복수노조 사업장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라면서, “사용자가 만든 노조는 반드시 무너지고, 현장 노동자가 만든 노동조합만이 자본과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 라고 소망했다.

# 대우조선 “복직은 산업은행 소관” 핑계만

## 대우조선 보안분회 직접고용 촉구 결의대회 ... “교섭 변화 없으면 끝장 투쟁”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월 24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 원직복직 직접고용 쟁취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헌지회 대우조선해양 산업보안분회는 식발식을 단행하고, 대우조선·산업은행 영정 운구 상징의식을 벌였다.



박대근 분회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은 40년 동안 원청의 불법을 참아왔는데, 이제 법을 지키라 하니 원청은 해고로 답했다”라고 분노했다. 박 분회장은 “노동자 투쟁으로 불법과 권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결과는 불법 대우조선을 향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박대근 분회장은 “대우조선 청원경찰 노동자는 더는 참을 기력도, 견딜 시간도 남아 있지 않다”라며 “대우조선이 계속 불법을 저지르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끝장 투쟁’을 벌여 반드시 원직복직을 쟁취할 것이다”라고 결의했다.

2월 3일 대전지방법원은 1심 행정소송에서 청원경찰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원청인 대우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대우조선은 2년 가까이 투쟁을 벌이는 청원경찰 해고자들의 복직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옥주 분회 조합원은 투쟁사를 통해 “대우조선에서 33년 6개월 동안 일했다. 해고당해 길거리에서 투쟁하리라 생각조차 못 했다”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김옥주 조합원은 “우리가 돈을 더 달라고 했나, 승진시켜 달라고 했나”라며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달라는데, 왜 대기업이 불법을 일삼고 노동자를 속이고, 가족을 힘들게 하느냐,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김옥주 조합원은 올해 정년이다. 분회 조합원 5명이 정년이다. 대우조선이 올해 안에 복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일한 조합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불법이 묻어버리고 만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대회 격려사에서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노동자 복직마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자인한 것”이라 비판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보안분회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대우조선 사측과 협상이 그나마 진행 중”이라며, “대우조선은 이제 산업은행의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대우조선이 협상테이블을 유지하며 시간을 끌기만 한다면 지부도, 노조도 저항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 경고했다.

신상기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연대사에서 “사측은 아직도 산업은행이 결정해야만 직접고용 복직할 수 있다고 한다”라며 “사측이 최선의 교섭을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분회는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노숙농성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식발식과 결의대회에도 대우조선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대우조선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